

부산 자갈치시장 용왕제의 도시 민속학적 특성 고찰

김 남 희*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자갈치 용왕제의 연행 양상과 특성 |
| 2. 자갈치시장의 역사와 남항 일대
용왕제 양상 | 4. 자갈치 용왕제의 도시 민속학적 의의 |
| | 5. 맺음말 |

국문초록

부산에서 남항일대는 어시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자갈치시장에는 매년 음력 정월에 자갈치용왕제가 개최된다. 이 용왕제는 타 지역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현장에서의 채록을 충실히 반영하는 현장론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자갈치용왕제는 매년 음력 정월 1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장에서는 자갈치시장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남항 일대에서 행해진 용왕제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를 내용을 발췌해 실었다. 3장에서는 자갈치용왕제의 구조와 연행 절차를 참여자와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최자, 절차와 방식, 상차림의 특성, 자갈치용왕제와 동삼풍어제 비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갈치용왕제는 자갈치시장 상인공동체의 주최로 197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음식장만,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치러오고 있는 공동체 제의이다. 특히 3장 4)에서는 자갈치용왕제와 동삼풍어제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자갈치용왕제만의 독창성을 규명해 보았다. 4장 1)에서는 도시의 시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생업 활동’과 관련한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연계해 자갈치 시장에서 민속제의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상인공동체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인 상행위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력적인 힘을 빌릴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이러한 제의문화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함을 밝혀 보았다.

주제어 : 자갈치시장, 용왕제, 민간신앙, 도시민속학, 제의문화, 대상제, 소상제, 동삼풍어제, 남항

1. 머리말

부산에서 남항일대는 어시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포동공판장, 자갈치공판장, 제1,2구 잠수기수협공판장,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어패류시장, 신동아시장, 자갈치건어물시장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갈치시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영도대교 아래의 건어물시장에서부터 부산어패류시장, 신동아시장,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 즐비한 일대 노점과 일명 꼬장어골목이라고 불리는 곳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갈치시장’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서 운영·관리하는 부산어패류시장을 가리킨다. 본고에서 말하는 자갈치시장은 어패류시장을 지칭하는 것이

다.¹⁾

‘자갈치시장’은 그동안 오랜 역사를 가진 부산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매김 해 오면서도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다. 선행연구로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²⁾가 있다. 본고에서는 용왕제라는 제의를 통해 자갈치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되짚어보고 나아가 민속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갈치용왕제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시장공동체 제의이다. 자갈치용왕제의 연구 방법은 현장의 상황과 목적을 충실하게 담아 현장론적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채록은 2011년 6월 18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³⁾ 제보는 신석출 前자갈치축제위원회 사무국장⁴⁾, 이승재 前어패류처리조합장⁵⁾, 부영상회 권순지⁶⁾, 잠수기조합 18번 상인⁷⁾과 합천상회⁸⁾ 상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권순지는 1970년 어패류처리장이 신축되어 조합이 생기고,

-
- 1) 편의상 ‘부산자갈치시장 용왕제’는 ‘자갈치용왕제’로 표기하기로 한다.
 - 2) 김청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시장의 기능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남원목, 『부산시 선어시장의 생태 - 부산종합어시장을 중심으로』, 『동아논총』 제2집, 1964; 노광봉, 『부산시 어시장의 공간적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1호, 2003.
 - 3) 이후에도 제의와 관련한 일 이외에도 자갈치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권순지씨의 경우에는 2015년 5월 25일 재방문해 채록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4)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신석출(76, 前자갈치축제위원회 사무국장)/ 제보일자 : 2011년 8월 3일/ 면담장소 : 자갈치 일대
 - 5)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이승재(남, 62, 前어패류처리조합장)/ 제보일자 : 2011년 8월 27일/ 제보경로 : 전화 인터뷰
 - 6)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권순지(여, 74세, 부영상회 운영)/ 제보일자 : 2011년 8월 26일, 9월 13일, 2012년 7월 16일 등/ 면담장소 : 부영상회.
 - 7)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잠수기조합 18번(여, 83)/ 제보일자 : 2015년 5월 23일/ 제보장소 : 자갈치 잠수기 조합 앞; 제보자가 이름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18번 하면 다 통하니까 그냥 18번으로 해 달라고 하셨음.
 - 8)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합천상회(여, 63)/ 제보일자 : 2012년 7월 6일/ 제보장소 : 합천상회; 제보자가 이름 밝히기를 꺼려하여 이름을 실지 않았음.

용왕제를 처음 지낼 때부터 2012년까지 용왕제에 쓰일 음식을 담당해 오고 있다. 제보자는 1962년 자갈치 시장에 정착하였는데, 부영상회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한다. 권순지의 부모님의 고향은 제주도다.⁹⁾ 권순지와는 6-7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대개 1시간가량이 소요되었다. 내용은 주로 음식 장만과 상차림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제보자는 말수가 적어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사적 얘기는 꺼려하는 편이었으며, 자갈치 용왕제와 관련해서도 음식 장만 이외에 다른 일은 일체 나서지 않는 편이다.

자갈치용왕제는 매년 음력 정월에 행해진다. 자갈치용왕제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직접 어로를 하지 않는 대신 어업활동으로 얻은 어획물을 수수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상인공동체에게는 풍부한 어획량의 확보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인공동체에게 자갈치용왕제는 시장공동체의 번영과 상업적 이윤 창출을 위한 제의다.

2. 부산 자갈치시장의 역사와 부산 남항 일대 용왕제 양상

1) 부산 자갈치시장의 역사와 유래

자갈치용왕제 연구에 앞서 자갈치시장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자갈치시장은 용미산(龍尾山)¹⁰⁾ 동남쪽 해안과 남

9) 부모님을 따라 잠시 일본에 가서 살았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10) 현재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자리는 옛날에는 ‘용미산’(龍尾山)이라는 야트막한 산이었다. 지금은 공원이 된 용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용두산과 한 쌍을 이루는 산으로 용의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구한말에 작성된 이시다 문서에는 1880년대 용미산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용미산은 바다로 돌출하였고 그 아래에 부산항구가 있다. 용미산에는 기이한 괴석

포동 건어물시장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30년대 남항(南港)이 매립된 뒤 지금의 위치로 옮겨왔다.¹¹⁾

20세기 초 당시의 東萊郡 富山浦는 오늘날과 같은 항구도시의 모습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東萊郡 釜山面 지역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해안통의 대부분이 매립되어 남빈정(南濱町)이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남항 일대의 용두산 쪽 바닷가는 자갈이 많아 ‘자갈치’로 불리다가 ‘자갈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어업과 어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개항과 함께 일본의 어업 및 상업자본이 들어오면서부터다. 특히,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과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¹²⁾이 체결되면서 일본어민들의 어업활동과 어획고가 증가하게 되자 일부 일본인들이 자국어민이 획득한 어획물의 판매를 위해 어시장을 설립했다.¹³⁾ 1889년 8월에 일본거류민 가운데 몇 사람의 유지들이 자본금 5만 엔으로 ‘부산수산회사’를 설립하였고, 1907년 5월 18일에 부산수산회사의 사업을 계승하여 자본금 60만 엔으로 ‘부산수산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어획물 위탁 등으로 근대적 어시장의 효시가 되었다.¹⁴⁾ 수산물 수요의 증가와 함께 어획물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면서 부산수산주식회사 인근에 ‘남빈

바위가 즐비하고 낙락장송이 뺨뺨해 보기 드문 좋은 경치를 이룬다. 산마루에서 바라보는 삼면의 바다 경치가 무척 호쾌하다.”

- 11) 조선총독부 관보(1930년 10월 15) 釜山水産株式會社魚市場位置, 面積及設備變更許可
- 12) <조일통어장정> 제41관의 내용을 보면 일본어선이 조선의 전라·경상·강원·함경의 4도 연안에 출어할 수 있는 대신에 조선어선도 일본의 肥前, 축전, 石見, 長門, 出雲, 대마도의 海濱 즉 큐슈의 북부지방인 나가사키(長崎)縣, 卍우고우 지방의 야마구치(山口)縣 및 대마도 등지의 연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표면상으로는 호혜적 평등을 가장하고 있다. 박구병, 『개항이후의 부산의 수산업』, 『항도부산』 제6호, 1967, 313쪽.
- 13) 김청열·조태훈, 『어시장의 사적변천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8집 제1호, 2013, 158쪽.
- 14) 박구병, 『한국 수산업단체史』, 수협중앙회, 1980, 12쪽.

정어시장'이 생겨났고, 한국인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획물 거래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재래어시장을 조직화 한 것은 1925년 4월에 설립된 '부산생어상조합(釜山生魚商組合)'이다. 부산생어상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한국인 김채규(金采圭)로 알려져 있으며, 이 조합이 경영하는 재래어시장의 어획물 거래 실적은 연간 30-40만원에 달했다. 부산생어상조합은 1925년 4월 부산부 남빈정 1정목 61에 주사무소를 두고 그 앞 해안에 재래시장을 통하여 조선인 선어상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거래 사업을 하기 시작한 한국인 중심의 유통 조직이었다.¹⁵⁾

1945년 광복 이후 자갈치 일대는 일본에서 건너온 조선인들이 모여 노점을 개설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이 철수하면서 부산수산물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어시장은 부산어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앙어시장으로 전환되었고, 1956년 9월 10일부터는 어시장의 운영주체가 부산어업조합 등 5개 수산단체로 변경되었다.¹⁶⁾ 이후 자갈치 일대는 연근해 어선들의 수산물 집산지로서의 어항기능과 노점상들의 활어 판매 기능이 혼재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부산 남항 일대 용왕제 양상

본 장은 신문 매체¹⁷⁾를 통해 보도된 기사를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부산자갈치시장이 위치한 남항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용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제목 : 기아(飢餓)의 고비 · 시드는 농어촌, 남해도(南海島)의 극빈지대 미조어항(極貧地帶 彌助漁港)의 실태>

15) 최정윤, 『일제시대 부산어업조합의 설립과 활동』, 『수산연구』 28호, 2008, 41쪽.

16) 김청열 · 조태훈, 『어시장의 사적변천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8집 제1호, 2013, 177쪽.

17) 신문은 1960년-1992년까지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을 참조하였다.

… 보리 고개를 앞둔 농·어촌의 식량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암담하기만 하다. …(중략) 남해 근방에서는 삼치, 갈치, 대구, 낙지 등이 매년 많이 잡혀서 부산·삼천포 등 각 시장에 팔리고 있었는데 지난 59년에 태풍 ‘사라’호가 지나간 뒤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통 고기가 잡히지 않고 있어 순전한 어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은 기아선상에 헤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당지 어민들은 ‘배선평’라는 풍어제를 수 십 년래 처음 지내기로 하고 ‘갈매기’를 조각한 나무를 동네 어귀에 세워 제사를 지내고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빌었다고 한다. …(하략) - 1961. 03. 28. 동아일보 3면 사회 기사

(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남항 일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에 남해 안 일대에서 잡힌 물고기가 부산과 삼천포 등지로 거래 되고 있었으며, 태풍의 피해로 불황이 이어지자 남해도 내 미조어항 어민들이 수 십 년 만에 처음으로 풍어제를 지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 어민에게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히 민간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은 남항 일대인 영도구에서 치러진 용왕제가 언급된 기사이다.

(나) <제목 : “용왕님이 보내 준 거북이야”>
거북이 등에 타고 표류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화제의 주인공 김정남씨 (26,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2가)의 집엔 29일 어머니 강현희씨(60) 등 가족과 이웃사람들이 몰려 용왕님이 보내 준 거북일거라면서 들뜬 화제로 꽃을 피웠다. 어머니 강씨는 아들을 구해 준 거북의 만수무강을 비는 용왕제를 28일 밤 남항동 앞바다에서 지내고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이웃사람들은 “정남의 효성에 용왕님이 감심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 (중략) 남항동 뒷산 성암사에서 매달 자식을 위한 불공을 드려왔다는 어머니 강씨는 아들이 배를 타면서부터는 용왕제를 지내왔다고.
- 1969. 08. 29 경향신문

(나)의 기사는 조난을 당해 거북이 등에 타고 표류하다 기적적으로 생

환한 김정남씨에 관한 기사이다. 가족과 이웃들은 그가 평소 효심이 뛰어나 용왕님이 감심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또 김씨의 어머니 역시 목숨을 구해 준 거북의 만수무강을 비는 용왕제를 지냈다고 한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남항 인근에서는 김씨 어머니와 같이 개인적으로 용왕제를 올리는 사람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웃사람들 역시 ‘용왕님이 보내 준 거북’ 덕분에 김씨가 생환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아, 김씨 어머니를 비롯한 이웃사람들과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용왕과 그 신격존재를 믿으며 의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남항에서 용왕제가 연행되었다는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 <제목 : 만선(滿船) 비는 풍어제(豐漁祭) 구정(舊正) 맞아 부산·인천(仁川)서>

부산항과 인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들은 구정인 15일 한 해 동안의 만선(滿船) 풍어를 비는 풍어제와 용왕제를 올렸다. ... (중략) 이날 오후 2시 부산남항 방파제 안쪽에서 각종 어선 백(百)여 척이 삼색 깃발을 높이 달고 아무런 재앙 없이 출어 때마다 만선 귀향토록 해 달라고 선주마다 바다에 제사 음식을 던지면서 기원했고, 인천항에서도 삼백(三百)여 척의 어선들이 오색기를 달아 놓고 올해의 풍어를 비는 용왕제를 올렸다.

- 1972. 02. 16 동아일보

(다)의 기사는 부산항에서 구정을 맞아 백 여척의 배가 삼색 깃발을 달고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원하였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도 부산을 비롯한 인천¹⁸⁾, 여수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18) <제목 : 풍어 비는 용왕제> 구정인 7일 서해 어민들은 올해도 풍어와 항해의 안전을 비는 용왕제를 올렸다.(사진) 이날 인천어항에는 조기잡이에 나설 3백여 척의 안강망 유자망어선들이 오색 깃발을 날리며 지난 한 해 동안 무사함을 감사드리고, 올해도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1978. 02. 06. 경향신문.

는 드물지 않게 용왕제를 지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이로 보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 및 근거 부족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70년 이후의 상황은 위의 기사를 시작으로 남항 일대에서 선주들에 의해 용왕제가 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제목 : 무사고, 만선(滿船) 귀항을 비는 풍어제>

무사고, 만선 귀항을 비는 풍어제. 각종 깃발 속에 파묻혀 풍어제를 지내면 틀림없이 능률이 오른다고. - 1975. 07. 31 동아일보(사진)

(마) <제목 : 풍어 기원 용왕제>

부산 남항에서는 6백여 척의 어선이 구정을 맞아 조업을 끝내고 부두에 정박, 오색 깃발을 달고 올 한 해 동안의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올렸다. (하략) - 1980. 02. 16 동아일보

75년 이후부터 80년 2월까지 남항일대에서 용왕제가 꾸준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보다 앞선 시기인 70년 8월에 풍어제가 민속예술 행사로 개최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바) <제1회 풍어제 개최 - 민속 예술 보존협회>

부산 민속예술보존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풍어제(배선굿)가 15,16 양일간 해운대 동백섬에서 열린다. ... (중략) 이 풍어제는 옛날부터 배선굿이라고 해서 별신굿, 배신굿, 도선굿 등을 포함한 해촌(海村)의 풍어와 안태(安泰)를 비는 무속적 민속행사로 해안 각 지방에 산재해 있던 것을 이번에 그 즐거리를 모아 종합 민속제전으로 꾸며 본 것이다. 어선들이 포구를 메워서고 해변과 어선에서 밝히는 햇불과 각색 등불이 불야성(不夜城)을 이루게 되는 이 풍어제에는 첫날에는 부정굿, 당산굿, 문당굿, 세존굿, 용왕굿의 여섯 차례의 굿을 치르고 해녀와 후리꾼 놀이를 가지며, 용궁 뱃놀이 등을 연희(演戲)하고 다음날도 명산맞이 굿 등 여섯 재차(祭次)로 나뉘어 굿을 계속한다. - 1970. 08. 13 동아일보

위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라), (마)와는 별개로 용왕제(풍어제=배선굿)가 민속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같은 시기에 치러진 두 갈래 용왕제의 주재자와 연행 장소이다. (다), (라), (마) 용왕제의 주최, 즉 주재자는 선주이며 연행 장소는 배 안 또는 위이다. 반면 (바) 용왕제의 주최는 민속예술보존협회이며, 연행 장소는 해운대 동백섬이다. 이로써 70년-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남항일대에서 주재자와 연행 장소가 다른 용왕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남항 일대가 아닌 동해안에서도 마을 단위의 용왕제가 개최되었다.

(사) <제목 : 동해안 풍어제 한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동 선착장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의 이름난 무당 10여 명을 초청, 성대한 풍어제를 올리고 있다. 또 영덕군을 중심으로 남북 54Km 해안에서도 4월 중순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계속 풍어제가 펼쳐진다. 동해안 풍어제는 신라 때 어촌 취락이 형성되면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5-10년 단위로 갖고 있다. 풍어제는 풍어와 어선 가족들의 무사태평을 빌고 어촌 부락민들의 단합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부락축제는 5백여 만 원을 들여 3일간 밤낮으로 계속 된다.

풍어제 의식은 동네 앞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제수를 차린 다음 성황당에 안치된 성황신을 모셔 어부 및 그 가족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소원 성취를 빈 다음 성황굿, 당맞이굿, 하회굿 등 순으로 진행하고 대거리굿이 끝나면 용안대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막을 내린다. - 1981. 04. 24 경향신문

(사)는 1985년 2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로 지정된 동해안별신굿이다. 이후 90년대가 되면 용왕제가 달맞이 축제와 수산물축제의 한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아) <제목 : 수평선 위 둥근 보름달 절경 소원 성취 비는 인파로 붉벼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

동해바다 수평선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보름달은 망망대해와 드넓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티 없이 고운 정경을 이룬다. …(중략)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열리는 달맞이 축제는 연날리기대회, 윷놀이, 널뛰기, 농악놀이, 강강술래 등 민속놀이와 방생대법회, 용왕제, 풍어제, 월령기원제 등 제의행사, 달집태우기 등으로 진행된다. …(하략) - 1990. 02. 09 한겨레

(자) <제목 : 자갈치 수산물 축제 22-24일 생선 요리전 등>

부산자갈치시장은 자갈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략) 제1회 자갈치 수산물축제를 벌인다. 이 축제는 22일 저녁 용왕제 거리굿, 폭죽놀이 등 전야제 행사에 이어 …(하략) - 1992. 10. 16 동아일보

(아)와 (자)를 통해 용왕제가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의 제1회 자갈치 수산물 축제는 자갈치 축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2015년 현재 제24회째를 맞았으며 용왕제는 공식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인간은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종 신앙 및 종교 문화를 만들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의 자갈치시장이 있는 남항 일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용왕제가 연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앞선 자갈치시장의 역사 연구와 함께 더욱 엄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3. 자갈치용왕제의 연행 양상과 특성

1) 참여자와 주최자

전통적으로 민간신앙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득한 옛날

부터 이어져 왔으며, 교리나 종교 조직이 없고, 신앙의 체계화가 이룩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갈치용왕제 역시 명백한 유래를 찾기가 어렵다.

자갈치용왕제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¹⁹⁾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용왕제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사무실 주관 아래, 시장 내의 8개부서²⁰⁾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준비한다.²¹⁾ 자갈치용왕제의 제의 내용과 방식은 부영상회 권순지의 제보에 근거해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제보자는 용왕제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의에 쓰일 음식을 준비해 오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갈치 용왕제는 1970년에 인근 노점상인들이 노점 또는 가건물 형태를 벗어나 제반 시설이 갖춰진 현대식 건물로 입점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²²⁾

자갈치시장(어패류처리조합) 바로 옆에는 잠수기조합이 있다. 이곳에서 38년 째 장사를 해 오고 있다는 18번 중매인²³⁾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은 제의에 직접 참여해 보지는 않았지만 곁에서 봤을 때 해마다 거르지 않고 거하게 용왕제를 지내고 있다고 제보해 주었다.

자갈치용왕제의 제의 날짜는 매년 음력 정월 15일을 넘기지 않고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갈치용왕제의 궁극적 목적은 자갈치시장의 번영이다. 상인들은 장사가 잘 돼야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며, 그래야 각 상인간의 화합과 단결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도 상인공동체에게 이 목적은

19) 부산어패류처리장은 1969년 9월 1일에 기공식을 가졌다. 1969. 09. 01. 매일경제.

20) 활어·전복·선어·잡어·동식당·서식당·식품·건어부 등

21) 각 부서 내에는 부녀회장과 총무를 각 한 명씩 두고 있다.

22)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권순지(부영상회)/ 제보일자 : 2012년 7월 17일 / 제보장소 : 부영상회 ; <제목: 종합어시장 준공 7백 점포 최신시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부산 종합어시장(자갈치시장)이 착공 1년 2개월 만에 20일 준공을 보았다. 1970. 10. 20. 매일경제.

23)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잠수기조합 18번 중매인(여,79)/ 제보일자 : 2015년 5월 23일/ 제보장소 : 자갈치시장 잠수기조합.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자갈치용왕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진심을 모으고, 정성을 담아서 거행되는 제의이므로 그 주최는 조합원 전원이며, 참여자 또한 음복시의 시민을 제외하면 상인공동체가 주가 된다. 자갈치 용왕제가 약 45여 년 동안 큰 갈등 없이 잘 치러져 온 것은 용왕제의 주목적인 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바라는 상인들의 소망이 정성으로 모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절차와 방식

자갈치용왕제는 개회사 → 인사말 → 의식봉행 →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2011년 2월 15일, 자갈치용왕제의 연행현장을 상차리기 → 용왕청 봉행 → 음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조합원 중에서 용왕제의 음식을 맡은 부녀회장과 총무 등 회원은 용왕제를 지내기 하루 전 날에 권순지의 부영상회에 모여 어느 품목을 구매할 것인지 회의 및 결정 과정을 거친다. 제의 당일 부녀회원들은 친수 공간 한쪽에 모여 밥, 탕국, 전, 나물, 구운 생선 등을 준비한다. 떡과 돼지머리는 전일에 미리 주문해 놓는다. 이때 과일, 나물은 5가지, 떡과 전은 3가지씩을 준비한다. 음식 진설 위치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밥, 탕국	떡시루	나물
전	돼지머리	전
해물(문어, 전복, 소라, 닭치, 군수)		
과일, 과자		

바다 쪽을 바라보게 진설된 祭床의 정면에는 용왕제를 알리는 플랜카

드가 걸린다. 그 플랜카드 아래 난간과 祭床 주변을 둘러 친 줄에는 길이 가로 20cm, 세로 50cm의 지등(紙燈) 수 십장이 달려 있어 용왕제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紙燈은 각 조합원 가정의 평안과 안녕, 가족의 성공과 건강에 대한 소망을 담은 내용으로 “가족 건강”, “소원성취”가 적히거나 또는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기도 한다. 紙燈은 조합원이 절에 미리 주문을 하기도 하고, 당일 즉석에서 써 주기도 한다. 이렇게 紙燈을 달아 놓은 장면은 동해안이나 남해안 일대에서 별신굿이나 오구굿을 할 때 지화로 굿청을 꾸미는 형식을 연상시킨다.

준비가 끝나면 친수 공간 내에 祭床을 차린 후에 용왕제가 진행된다. 용왕제 진행 시간은 오전 10시-12시까지이다. 이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한 시간대에 나와서 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상차리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제의가 시작된다. 자갈치시장 前·現職 조합장 및 임원진, 시·구 의원, 관할 동·통장의 재배가 끝나고 나면 증명법사²⁴⁾인 미룡사 정각스님²⁵⁾이 『용왕청(龍王請)』을 봉행한다. 이때부터 시장 조합원들이나 관광객들은 제상 위에 성의껏 돈을 올리고, 향을 피운 다음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

스님이 <보례진언普禮眞言>을 읊고 나면 <천수경> 독송이 이어지는데, 이때 범패²⁶⁾가 구성된다. 범패는 증명법사의 주관 아래 의식승 2-3명, 참관스님 2-3명으로 이루어지며, 樂²⁷⁾은 바라지 스님이 맡아 한다.

24) 불사나 법회, 선방, 강원 등에서 행사를 증명해주는 소임. 대개 큰 스님들이 맡는다. 상징적 장치로서 큰 스님을 모시는 명분을 제공한다.

25)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영도 미룡사 청명스님(남)/ 제보일자 : 2012년 8월 13일/ 제보 장소 : 영도 미룡사/ 제보 내용 : 미룡사를 방문했으나 정각스님은 만나지 못하고 청명스님을 만나 면담함. 청명스님은 정각스님이 언제부터 자갈치용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이 미룡사에 온(2007) 이후부터 해마다 음력 정월에 자갈치용왕제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함.

26)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쓰는 음악이다. 범패는 영남, 호남, 서울 범패가 있는데, 여기서는 영남범패를 행한다.

27) 북, 징, 광쇠, 목탁, 요령

<친수다라니>를 안채비, 바깥채비²⁸⁾로 번갈아 가며 소리를 하고 그 소리에 맞춰 의식승 2~3명이 作法으로 바라춤과 나비춤을 춘다. 작법이 끝나면 유치(由致) → 청사(請詞)가 이어지고 축원문으로 마무리 한다.²⁹⁾ 범패를 포함해 증명법사의 주관 아래 펼쳐지는 행사는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끝 순서로 음복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복은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으로 여겨 제사에 참석한 가족·친지 및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다. 자갈치용왕제에서도 제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음식은 조합원을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일반 시민, 관광객과 함께 나눠 먹는다.

이때 풍물패가 나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있는 시장 내부에 들어가 풍물을 하며 흥을 돋운다. 풍물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풍물패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타 풍물패를 초빙해서 연행한다. 자갈치 용왕제 과정에서 음복으로 활기가 넘치는 친수 공간 일대의 모습은 전통사회의 잔치판 또는 굿판의 대동놀이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3) 상차림의 특성

자갈치용왕제는 상차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문어, 전복, 소라, 담치, 군수 등의 패류와 조기, 도미 등의 어류를 합해 총 1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어패류가 진설된다. 용왕제는 그 지내는 장소

28) 범패에는 안채비들이 부르는 안채비소리와 겹채비(또는 바깥채비)가 부르는 홑소리와 짓소리가 있다. 안채비란 재(齋)를 올리는 절안의 유식한 병법(乘法) 또는 법주(法主)가 유치(由致)·청사(請詞) 같은 축원문을 요령을 흔들며 낭송하는 것으로, 흔히 엽불이라고도 한다.

29)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영도 미륵사 청명스님(남)/ 제보일자 : 2012년 8월 13일/ 제보장소 : 영도 소재 미륵사/ 제보내용 : 용왕제 진행과 관련한 범패 구성에 대해 면담함. <용왕청>의 진행 순서나 속도 등은 의식의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의 다양성³⁰⁾만큼이나 진설되는 음식도 종류가 다양해서 전형적 양식이거나 규범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예컨대 경남 하동군의 대도에서 매년 음력 선달 초사흘날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창굿을 한다. 이때 상에 올리는 음식을 보면 밥, 술, 명태 이외에 도미찜, 문어, 가자미 등속의 어류가 진설됨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 용왕굿에서는 쌀밥, 시루떡, 나물, 과일 등을 제물로 쓰며, 어류는 용왕이 관할하는 수하라고 하여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 김성미·손유정³¹⁾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무속 제의로 치러지는 동제의 경우에 마을의 전통, 자연 및 경제 환경에 따라 제물의 규모나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기본적인 밥, 술, 명태 이외에도 청어, 문어, 도미, 마른 오징어, 새우 등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반면 불교식 제의에서는 나물과 과일 위주로 제물이 차려진다.

용왕제와 관련한 제의 상차림은 제의의 성격은 물론 지역 간의 차이 못지않게 해당 지역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갈치용왕제가 열리는 자갈치시장은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모든 어패류가 집결되는 한국어패류종합백화점이라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최고 수치의 수산물 물동량을 보이는 자갈치시장에서 제의 상차림을 준비하는 과정은 지역·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풍성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갈치용왕제에서 다양한 음식을 진설하는 이유는 바다를 주관하는 용왕신에게 최상의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큰 福을 바라는 현세 구복적인 민간 신앙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제21회 용왕제의 준비위원을 맡았던 합천상회 상인³²⁾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0) 용왕제나 풍어제는 어민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믿는 용왕에게 제물을 받치는 의식이다. 바다나 큰 강 뿐 아니라 마을이나 집안의 우물에서도 용왕제를 지내기도 한다.

31) 김성미·손유정, 『영남지방의 무속과 불교 제의에 나타난 음식문화 연구』, 『동아시아 食生活學會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1.

32)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합천상회(여, 63)/ 제보일자 : 2012년 7월 6일/ 제보장소 : 합천상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왜 하는지 잘 몰라. 허긴 우리도 젊었을 때는 뜻도 모르면서 할매들이 시키니까 그냥 따라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우리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거 아이가. 장사 잘 데가 자식들 공부 시키고 집 사고 할라든 돈을 마이 벌어야 하니까 장사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 거 아이가.”

상인공동체는 초자연적 힘을 통해 현실적 바탕 위에서 의례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얻고자 하는 현세구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용왕에게 크고 좋은 음식을 바치는 또 다른 이유로 바다에 대한 감사와 보은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은 부산 범일동에서 40년째 횃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용왕제에 참석하고 있는 정계순(71)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세상천지 바다에서 고기 안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나. 바다 고기 갖다 팔아먹고 사니까 용왕님께 잘 빌어야지.³³⁾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갈치용왕제의 상차림에 담긴 의미는 현세구복적 신앙심과 바다에 대한 감사와 보은하는 마음을 담아 차려진다는 데 있다. 공동체 상인들 역시 이와 같은 뜻을 담아 가장 크고 값비싼 어물을 용왕에게 바치는 것이다.

자갈치 용왕제 상차림의 두 번째 특징은 용왕에게 바치는 제상이 모두 네 개 준비된다는 점이다. 상은 큰 상 1개와 작은 3개가 마련되는데, 본고에서는 대상제(大床祭)와 소상제(小床祭)로 구분하였다.

자갈치용왕제는 主舞臺인 친수공간과 자갈치시장 입구, 변전실, 그리고 어패류처리조합사무실 등의 공간에서 동시에 연행된다. 대상제는 자갈치시장 건물에서 바다 쪽으로 마련된 친수공간에서 연행되고, 소상제는 자갈치시장 입구, 변전실, 어패류처리조합사무실에서 연행되는 공동

33) 조선일보 2006. 02.12 강인범·권경훈 기자.

제의를 말한다.

자갈치용왕제에서 중요하면서도 진지하게 여기는 제의는 소상제이다. 자갈치시장 입구에 상을 차려내는 것은 시장 입구가 대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간신앙에서 대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그 문을 통해 복이나 재운, 악운이나 잡귀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여겼다.

또 사무실은 시장의 주인으로 곧 가신신앙에서 성주신 역할을 한다. 성주신은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주관하는 집안 최고의 신격이다. 변전실의 경우에는 그 중요도가 남다르다. 현대식 시설이 갖춰진 어패류시장의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 하나는 전기 공급이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와 바닷물이 공급되어야 함으로 그 공급기 가동을 위해서는 전기 공급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의의 가장 큰 목적은 시장의 변영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가 끊겨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족관에 사들여 놓은 물고기가 신선도를 잃거나 죽게 되어 상인공동체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게 된다. 상인공동체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변전실에 따로 상을 차려 내는 것이다.

어로활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뱃고사와 관련한 것이다. 경남 통영시 마을 배서낭제(뱃고사)의 상차림을 그 비교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 통영시 산양읍 당포마을 김찬이씨³⁴⁾

	나물	밥	
명태			자반고기
	술		
떡		과일	

34)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지역 배서낭제>,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마을 김찬이 (남, 55)

배 위의 상을 차리는 위치 ※ ○ 상 놓는 위치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 통영의 뱃서낭제 상차림에서 상이 차려지는 위치는 배의 이물[船首], 상갑판(한장)³⁵⁾과 기관실에 각각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김찬이씨는 배고사를 선달 그믐날에 지내는데 음식은 자반고기 1마리, 과일, 밥, 떡, 채소나 나물을 올린다. 제물은 배의 이물, 상갑판(한장), 기관실 세 군데에 차린다. 이물에는 성주가 있기 때문이고 한장에는 선왕이 있기 때문이다. 상차림은 상 왼쪽 아래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떡, 명태, 나물, 밥, 자반고기, 과일이 올라간다. 고사의 순서는 이물의 성주 → 한장의 선왕 → 하장의 기관실 순으로 모신다. 지내는 차례는 먼저 절을 두 번 반 한 후 용왕님께 “성주, 선왕님 1년 내 사고 없이 남보다 작업 잘하게 해 주이소”라고 빈 후 음식을 탁주와 한 그릇에 모아서 용왕님께 드린다. 이후 바다에 사용한 것을 모두 ‘겘이’를 미는 것으로 뱃고사가 끝난다.³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갈치용왕제는 대상제·소상제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대상제는 자갈치시장 바다 쪽 친수 공간에서 연행되며, 상인공동체는 물론 일반 관광객까지 참여하는 제의다. 소상제는 상인뿐 아니라 직원과 경비를 비롯한 자갈치시장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풍요와 건강 이외에도 시장공동체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한다. 용왕제가 행해지는 동안 친수 공간과 출입문, 사무실, 기계실 등은 일상공간에서 제의공간으로 탈바꿈해 제의 효과를

35) 거룻배 따위의 배 맨 한가운데의 칸.

36) ichpedia 온라인무형문화지식사전 ; 최초 입력자 육수현(무형문화연구소)

극대화 시킨다는 점이 자갈치용왕제의 의례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자갈치용왕제는 현세의 복락과 구원을 바라는 민중들의 생득적인 염원을 담은 민간신앙적 성격이 짙은 의례라고 할 수 있다.

4) 자갈치용왕제와 동삼 풍어제 비교

2010년 부산에서는 총 23곳에서 별신굿이 전승되고 있었으나³⁷⁾ 2013년 현재는 14곳에서만 풍어제가 연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칠암, 학리, 대변, 공수마을은 인근의 죽성, 일광 마을과 함께 6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풍어제를 지내고 있다.³⁸⁾ 2013년 조사된 14곳 가운데는 자갈치시장 용왕제도 포함되어 있다. 『동삼풍어제』에 따르면 “자갈치시장 용왕제는 그 전승 시기가 주기적이지 않고, 내용도 일관되지 않아 올바른 전승이라 보기 어렵고, 대체로 시장연합회에서 벌이는 축제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행으로만 존재할 뿐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갈치시장 용왕제는 자갈치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용왕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자갈치용왕제는 생성공간이 어시장으로 생업민속의 범주에 속하지만 아직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 형태의 제의양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교 대상을 찾기가 수월치 않은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자갈치용왕제의 특수성을 밝혀보기 위해 인접지역인 영도 하리항의 동삼풍어제를 그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는 자갈치용왕제의 명칭, 소재지, 전승자, 내용(역사, 제일, 비용, 제물, 장소, 절차와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이며, 관련 문화 요소, 관

37) 이균옥,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 박이정, 1998; 윤동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61-62쪽.

38) 이균옥·김신효·윤동환·김소형·박연희, 『동삼풍어제』, 국립해양박물관, 2013, 13쪽.

런 금기, 현재 상황에 관한 내용을 보강토록 하겠다.

(1) 관련 문화 요소

자갈치용왕제와 관련한 문화 요소로는 자갈치축제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용왕제가 있다. 자갈치축제는 1992년 제1회 자갈치수산물축제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제24회째를 맞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수산물축제이다. 자갈치축제 용왕제는 제15회(2006년)때부터 시작하였으며, 목적은 시장의 번영과 중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갈치축제의 전통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절차와 내용은 제2회의 경우, 남해안별신굿의 정석모가 집전하여 용왕굿을 펼친다. 굿 내용은 자갈치축제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상인들은 시장 전체의 번영을 기원하며, 무병장수와 招福을 주문하고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³⁹⁾

자갈치축제 용왕제는 상인들이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오지는 않지만 싱싱한 고기를 잡아오는 선원과 배의 안전은 곧 상인들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바다의 용왕에게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막아주고 안전을 도모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 재현 행사다.

자갈치축제 용왕제는 특별한 금기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꺼리며 삼간다고 한다. 용왕제의 제물은 자갈치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전일에 마련한다. 제물은 여느 고사와 대동소이한데 떡, 과일, 마른명태, 술, 돼지머리, 전 등이 준비 된다. 과일의 경우 흠집이 없는上品으로 골라야 하며, 값은 깎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으로 부산자갈치축제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왕제를 살펴보았다. 자갈치축제 용왕제는 제의성이 약화된 채 놀이성과 오락성으로 일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일회적인

39) 조명환·양봉석, 『자갈치祝祭 十年史』,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보문디자인, 2002.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갈치축제 용왕제’의 성격과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갈치축제 용왕제는 전통적 제의 형식을 빌어 축제에 필요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자갈치축제 용왕제는 축제의 성공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원함에 있어 전통 양식을 현대에 맞게 각색하여 축제 전야의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2) 관련 금기

자갈치용왕제는 1990년 후반 무렵까지만 해도 일련의 금기가 있었다. 제관으로 선정된 이는 일주일 전부터 술과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금했다. 용왕제 당일에는 목욕제계로 용왕제를 준비했다. 조합원들도 제일 3일전부터는 몸을 정갈히 하고 모든 일을 삼가야 했는데, 특히 손님과 흥정을 할 때 시비가 붙지 않도록 말조심을 해야 하는 등이다. 현재는 특별한 금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⁴⁰⁾

(3) 현재 상황

자갈치용왕제는 미룡사 정각스님의 진행으로 어민의 무사와 풍어, 자갈치시장의 번창과 조합원의 안녕을 비는 제의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⁴¹⁾

40) 이승재 前조합장에 따르면 제관으로 선정된 이는 당일에 목욕제계는 물론 일주일 전부터 술과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금했다고 한다. 조합원들도 제일(祭日) 3일전부터는 몸을 정갈히 하고 모든 일을 삼가게 했으며 특히 손님과 흥정 할 때 시비가 붙지 않도록 조심시켰다고 한다. 조사자 : 김남희/ 제보자 : 이승재(남, 62, 前어패류처리조합장)/ 제보일시 : 2011년 8월 27일/ 제보방식 : 전화 인터뷰

40) 2015년 3월 2일(월) 10시에 열린 제24회 자갈치용왕제에 참석한 중구청장의 축사 내용 참조.

2) 동삼풍어제⁴²⁾

동삼풍어제가 열리는 장소는 동삼동 갯가이며, 이 별신굿의 주관처는 3백 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동삼동 어촌계이다. 동삼동 어촌계장이 제주가 되어 이름난 무당을 가려서 불러다가 배꾼다. 그 자리에는 마을사람들이 다함께 참여하고 있다.

동삼풍어제는 제일(祭日) 사흘 전 부터 그 채비에 들어간다. 제주가 되는 어촌계장은 제일(祭日) 이전 뿐 만 아니라 그 뒤 당분간까지도 언행근신은 물론 굿당을 지키는 책임을 지게 돼 있을 뿐 만 아니라 별신굿 집행과 그에 따른 경비지출 등 일체사항을 총괄한다. 또 별신굿 순서에 따른 굿거리마다의 제상진설(祭床陳設)도 제주인 어촌계장이 맡아 한다.

무당도 어촌계장의 집행지의에 따라 제(祭)를 진행하게 된다. 풍어제는 길놀이로 시작돼 동해안별신굿과 선상 용왕제 등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굿이 이어진다.

(1) 명칭

동삼풍어제. 더러 아낙네들은 이것을 ‘용왕제’라고도 한다.

(2) 소재지

동삼풍어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서 개최되는 풍어와 어업민의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풍어제이다.

(3) 전승자(중사자) : 개인() / 단체(○)

동삼풍어제는 제를 치르기 한 달 전에 어촌계 산하에 풍어제추진위원단이 결성된다. 일반적으로 어촌계장이 풍어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직을 맡는다. 제수 준비는 하리의 부녀회원들이 맡는다.

41) 이균옥·김신호·윤동환·김소형·박연희, 『동삼풍어제』, 국립해양박물관, 2013.

(4) 내용

동삼풍어제는 음력 3월 초하룻날부터 초닷세 사이에 풍어와 마을 안녕을 비는 큰제사이다.

① 역사

동삼풍어제는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인 동삼동 패총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어업과 관련된 삶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2013년 동삼풍어제는 50주년을 맞았다. 동삼 풍어제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어촌에서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어선들이 만전을 자주하고 사고 없이 바다에서 조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동민을 단결하는 마을축제로 시작되었다.

② 전승 주체

동삼풍어제는 온 마을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며, 어민들이 풍어와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따라서 전승 주체는 동삼동 주민 일동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화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③ 제일, 비용, 제물

동삼풍어제는 동해안의 일반적인 별신굿(풍어제)과 달리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 가운데 굿의 주기와 일정이 매우 짧은 점이 큰 특징이다. 인근 부산이나 경남 동해안지역의 경우 3-5년 주기에 3-7일의 일정으로 굿을 하는 마을이 많다.

동삼풍어제 비용은 동삼어촌계 월례회에서 낸 결산보고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입이 수협중앙회 지원금 1천만 원+ 영도구청 3백만 원+ 어민협찬금 4백여 만 원+ 찬조금 1천5백여 만 원으로 총 3천2백 여 만 원이다. 지출은 홍보비를 비롯해 음식준비금까지 총 2천4백 여 만 원이

쓰였다. 따라서 2013년 당해 연도 동삼풍어제 비용을 결산하면 8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했다.⁴³⁾

동삼풍어제의 제물은 건어물, 과일, 밥과 떡, 기타 음식 등이며,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손님 접대용 ‘돼지고기’이다. 돼지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으로 4마리 정도 주문한다. 이는 풍어제가 마을 전체의 바람을 기원해주는 제의이기도 하지만 어촌계의 입장에서는 하리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⁴⁴⁾

④ 장소

동삼풍어제 제의 장소는 하리항 선착장 주변이다. 어촌계원들은 아침부터 선착장에서 양수기로 바닷물을 끌어 올려 선착장 주변을 물청소하고 항구의 폐그물과 밧줄 등 그동안 방치되었던 쓰레기를 수거하여 말끔하게 정리한다.⁴⁵⁾

⑤ 절차

동삼풍어제의 재차(祭次)는 2013년의 경우 기록 재차는 ‘부정굿 → 골매기굿 → 세존굿 → 선상기원제 → 천왕굿 → 성주굿 → 산신·지신굿 → 용왕굿 → 대내림 → 뱃노래 → 거리굿’순이었다.⁴⁶⁾

⑥ 관련 문화 요소

부산 영도구 하리의 마을 신앙으로는 아래서발 당산(할배당)과 골매기 할배당에서 지내는 동제가 있다. 하리 동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이튿날 길놀이와 함께 대잡이를 하며 시작한다. 정월 대보름 열 나흘날 자정

43) 앞의 책, 112쪽.

44) 앞의 책, 54쪽.

45) 앞의 책, 55쪽.

46) 앞의 책, 67쪽.

이 되면 제를 올렸는데 그 전에 각 당에 흰 천막을 두르고 제당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거기에 원새끼를 끈 금줄을 쳤다.

이렇듯 매년 엄격하게 치러졌던 동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인구 이동으로 제관직을 맡을 마을 사람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제관직을 맡을 수 없는 이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⁴⁷⁾

⑦ 관련 금기

제수를 구입할 때는 절대 가격 흥정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물건을 산다.⁴⁸⁾

(5) 현재 상황

“영도구, 제51회 동삼어촌계 풍어제 개최”⁴⁹⁾

동삼풍어제는 2014년 3월에도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만선 풍어제 및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상에서 자갈치용왕제와 동삼풍어제를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몇 가지 공통점 내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첫째, 두 유형은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의문화의 하나라는 점이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또한 끝이 없으므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특히 욕망이 재난, 재해, 사고와 관련한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갈구하는 행위는 본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아무리 문화적으로 발전한 사회라 하더라도 제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없다.⁵⁰⁾

47) 앞의 책, 38쪽.

48) 앞의 책, 38쪽.

49) 아시아뉴스통신, 2014년 3월 31일.

50) 임재해, 『민속문화에 갈무리된 제의의 정체성과 문화 창조력』, 『실천민속학연구』

둘째, 전승자의 경우 자갈치용왕제는 어패류처리조합과 상인공동체가며, 제수 준비는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동삼풍어제의 경우도 풍어제추진위원단을 결성, 어촌계장이 풍어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제수 준비는 하리의 부녀회원들이 맡는 것으로 두 유형 모두 주민 또는 상인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제의를 추진되고 있다.

두 유형의 다른 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갈치용왕제가 스님을 초청하여 제의를 봉행하는 반면 동삼풍어제는 총 10여 명의 무당이 주관하는 별신굿이다. 자갈치용왕제에서 스님은 『용왕청(龍王請)』을 봉행하고, 범패를 구성한다. 동삼풍어제에서 무당은 재차(祭次)에 따라 굿거리(거리)에 맞춰 제의를 진행한다. 각 거리마다 주무 1명과 악사 4-5명이 각 거리를 이끈다.

둘째, 제의 비용 마련에서 두 유형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자갈치용왕제는 각출과 조합비와 약간의 찬조금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는 반면 동삼풍어제는 어민 찬조금 외에 영도구청, 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지원과 찬조를 받는다.

셋째, 상차림에 나타나는 차이점으로는 자갈치용왕제는 모두 4개의 상을 차려 각각 주무대인 친수 공간, 시장 입구, 사무실, 변전실에 차려낸다. 동삼풍어제는 굿당 정면에 기본 제단을 차린다. 그리고 이어 제주집(51) 때 1개 등 각 거리마다 소상을 차려낸다. 그리고 골매기굿 때는 골매기상의 음식을 조금씩 떼어 제반한 사자밥을 굿당 근처 공터에 놓아 두기도 한다.

끝으로 비교분석을 통한 자갈치용왕제의 독창성을 짚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갈치용왕제는 비용 마련 부분에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찬조 없이 상인공동체 주도형의 의례라는 점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제의 당일 紙燈을 달고, 희망자에 한 해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 넣는 경우

10집, 실천민속학회, 2007, 19쪽.

51) 제주집굿은 풍어제의 시작에 앞서 김영희 무녀 혼자 비손형태로 진행된다.

도 있다. 하지만 썸이 밝은 상인공동체가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제의에 동참한다는 사실은 상인공동체 각 개인에 있어 상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일이 그 어떤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인공동체의 제의를 대하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상인공동체는 생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제의가 끝나면 자신의 상점에서 팔던 생물을 가지고 나와 바다에 방생함으로써 살생에 대해 속죄하고자 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셋째, 자갈치용왕제는 1990년 무렵까지만 해도 금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자갈치용왕제는 일정한 금기가 없다.

예로부터 제의에 참석하는 제주는 3일-1주일 정도 목욕재계와 갖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여겨왔다.

자갈치용왕제는 준비 단계부터 음복까지 상인공동체의 힘으로 치러지는 제의이므로 그 해 제의를 맡은 부서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그런데 제의의 책임을 맡은 상인공동체는 제일(祭日)이라고 해서 생업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나 준비 과정은 생략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다. 그 가운데는 금기도 포함된다.

자갈치용왕제가 연행되는 공간은 生面不知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市長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또 직접 어로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의 단위가 축소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신앙은 신격에게 가정을 포함한 공동체의 화복을 바라며, 생업활동의 번창을 소망하는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띤다. 제의 참여자들의 세속적 욕구가 절실할수록 금기도 한층 강화되기 마련이다.

금기는 어기지 않고 지킴으로써 얻게 될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 ‘금함’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갈치 용왕제에서는 일정한 금기 현상을 보기 어렵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갈치용왕제의 연행 목적은 시

장공동체의 상업적 이익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제약을 막고, 회복을 기원하기 위함에 있다. 하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상인들은 생업활동이라는 일상성을 벗어날 수 없다.

‘금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또는 위반하는 일은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금기를 만들어 지키는 일에는 통제가 필요하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오고가는 공간이다.

따라서 시장은 매사가 항상적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시장은 무질서와 질서가 공존하면서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진행되는 곳이다. 즉 규범과 질서, 그에 따른 통제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기를 지정해 놓고, 규범을 따르듯 금기를 지키는 행위는 상인공동체에게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는 민속 신앙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제도적인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경험의 반복에 따른 판단에 그 신앙구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

4. 자갈치용왕제의 도시 민속학적 의의

1) 도시와 시장 민속

지난 20세기 한국 사회는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경험했다. 이전의 전통은 ‘낡고 오래된 것’ 내지는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촌락사회의 전통은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양식을 창출하게 된다. 도시는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주요 부문에서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은 도시에 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화율이 91.6%

(2013)에 달한다.

그동안 도시민속 연구는 방법⁵²⁾과 필요성⁵³⁾을 다룬 연구를 비롯하여 의례⁵⁴⁾나 축제⁵⁵⁾ 등의 연구 성과를 보여 왔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시장 민속과 관련한 연구로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사람들(중매인)의 경제 행위를 다룬 연구⁵⁶⁾와 시장 사람들의 사회관계 연구⁵⁷⁾, 시장의 시공간의 변천⁵⁸⁾을 다룬 연구와 시장의 구조와 기능⁵⁹⁾, 내부 구성을 다룬 연구⁶⁰⁾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민속의 연구 대상을 공간적 범주, 즉 생업 공간인 어 시장에 두고 논의하였다.

도시 재래시장의 민속 현상은 시장의 생성과 변천 및 관련되는 역사적 일화를 비롯하여 생업과 사회관계, 의식주, 물질, 의례, 종교, 놀이, 세시 등 기존의 민속 내용을 포괄한다.⁶¹⁾ 도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중심

-
- 52) 박환영, 『도시민속 연구의 방법과 영역』, 『한국민속학』 54집, 한국민속학회, 2011; 임재해, 『민속학의 새 영역과 방법으로서 도시민속학의 재인식』, 『민속연구』 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6.
- 53) 강정원, 『민속학과 현대사회, 도시』, 『한국 문화 연구』 7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 54) 김시덕, 『현대 도시 공간 속의 장·상례문화』,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55) 박환영, 『도시와 민속의 현장 - 경기지역의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6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한양명, 『원전과 변환: 도시축제로서 제주 입춘굿 놀이의 문제와 가능성』, 『한국민속학』 37집, 한국민속학회, 2003.
- 56) 김우영, 『청과물 도매시장 중매인의 경제행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 57) 강정원 『노점상의 특성과 사회관계에 대한 일 연구-대구시 서문시장 노점상의 사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58) 이상열, 『성남 모란장의 시공간적 변천과 의미 변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 59) 박원철, 『시장 상인을 통해 본 지방 중소 도시 정기시장의 구조와 기능-영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60) 이은정, 『영천 시장체계와 내부 구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박경용, 『도시민속과 시장 공간- 대구 약령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9집, 실천민속학회, 2007.

으로 형성되며, 시장은 도시의 확대, 인구 성장, 거주 지역의 외연적 확장 등의 요인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또 물자교환, 다수의 판매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장소로써 도시생활권의 중심이 되어왔다.

따라서 도시 시장 공간은 도시민속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단위 중 하나이다.⁶²⁾ 특히 자갈치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어시장이다. 어시장에서는 판매자·생산자·중개인 등이 상품 거래를 매개로 서로 만난다. 이 가운데 생산자라 할 수 있는 선주를 비롯한 어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2장 남항일대 용왕제 양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속 의례를 수행해 왔다. 자갈치용왕제는 판매자인 상인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시장의 번영은 물론 생산자의 무사안일과 풍어를 함께 빌어주는 의식이다.

시장 공간은 상거래가 주된 기능이므로 생업·물질·사회민속이 특히 발달⁶³⁾하지만 본고에서는 종교민속적인 측면에서 개별 상가 혹은 전 상인공동체를 위한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를 통해 잔존문화로써의 민속이 아닌 종교민속학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시장 민속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생활양식과 제의

‘시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생업 활동’과 관련한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구성원간의 조직과 내적 통합을 위한 공동의 제의가 그것이다. 시장의 생업 활동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품이 거래되는 것이 기본 구조를 이룬다. 상인공동체에게는 물질 상품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이 소매업자인 자

61) 박경용, 『도시민속과 시장 공간- 대구 약령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9집, 실천민속학회, 2007, 167쪽.

62) 박경용, 위의 논문, 166쪽.

63) 박경용, 위의 논문, 168쪽 <표 4> 참조.

갈치시장 상인공동체는 도매시장인 공동어시장에서의 경매를 통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구매를 위해 중개인 또는 중간 가공자와 연대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인공동체에게 있어 구성원간의 경쟁과 갈등은 공동의 규약과 관행이 있으므로 해결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품을 소비자에게 원활히 유통시켜야 하는 상행위는 생업활동의 가장 큰 변수가 된다.⁶⁴⁾ 이들 요소는 상인공동체나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타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더 많다.

제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타력적 문제해결 의지가 만났을 때 발휘된다.⁶⁵⁾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류는 기술과 기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제의와 주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의문화는 과거의 인습이 극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존문화도 아니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라질 문화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⁶⁾

3) 상인공동체와 제의

도시에는 많은 직업군이 있다. 시장은 물자의 교환을 토대로 다수의 상거래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도시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가운데 어시장은 주로 해안도시를 끼고 형성되며, 어류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거래하는 장소성을 가진다. 자갈치시장은 부산 남항 일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자원이 집결되는 곳이므로 바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때문에 사상·종교·풍

64) 이외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상품의 질, 날씨, 경제 지표 등이 있다.

65) 임재해, 『민속문화에 갈무리된 제의의 정체성과 문화 창조력』, 『실천민속학연구』 10집, 실천민속학회, 2007, 17쪽.

66) 임재해, 앞의 논문, 18쪽.

속·언어·공동체 문화 등의 정신문화는 물론 의식주를 위한 조직구성과 생산양식 및 도구 등 문화생태학적인 환경을 갖춘 창조적 공간이다.

자갈치용왕제는 상인공동체가 그들 삶의 기반이 되는 상업 공간인 시장에서 신격으로 모신 용왕에게 어로활동에서의 안전과 풍어는 물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연행하는 제의이다. 여타 용왕제와 동제가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각종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주술행위라면 자갈치용왕제는 직접적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확한 어획물을 판매·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상인공동체가 보다 많은 양의 어획물을 보다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 받고자 용신에게 기원하고 축원하는 의례인 것이다. 상인공동체는 제의를 통해 얻은 심리적 안정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삶의 희망을 부여 받기도 한다.

자갈치용왕제는 상인공동체에게 일과 놀이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준다.⁶⁷⁾ 자갈치용왕제의 축제성은 용왕제가 열렸던 야외무대가 순식간에 대동적 화합의 장이 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시장 내부를 한 바퀴 돌아 나온 풍물패가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제의에 참석한 내빈은 물론 이웃 시장 상인, 심지어 제의를 구경하는 관광객까지도 음복에 동참하게 된다. 제의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음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음식을 각 부서로 가져다주기도 한다.

제의는 신과 자연에게 소원을 비는 일이다. 자연히 제의는 생산 활동의 일보다 엄숙하며, 재미를 즐기는 놀이보다 신성하다.⁶⁸⁾ 임재해는 자신을 움직여 생존에 필요한 것을 직접 구하는 ‘일’이나, 즐거움을 스스로 추구하는 ‘놀이’와 달리, 제의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의 힘, 곧 ‘타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는 의식이 뒤따른다고 하였다.

자갈치용왕제에서 상인공동체는 제의가 열리는 날에도 생업을 위해 商家를 비워둘 수 없으므로 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67) 임재해, 앞의 논문, 8쪽.

68) 임재해, 앞의 논문, 8쪽.

많다. 하지만 상인공동체의 일원들은 자갈치 용왕제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의례라기보다 상인공동체 전체를 위한 의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는 마음은 한결같다. 이를 잘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앞서 언급한 경비 마련 과정이다.

자기 염원이나 소망을 이루고자 신을 대상으로 비는 일을 일정한 의식을 갖추어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제의’라고 한다.⁶⁹⁾ 자갈치용왕제는 불교적 의례의 습속과 유교식 제례 습속, 그리고 紙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무가적 속성이 혼재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세 구복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갈치용왕제는 원초적인 인간 존재나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을 품기보다 어떻게 하면 재난을 피하고 현실적 풍요를 누릴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다.

자갈치용왕제는 도시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45여 년 간 꾸준히 이어져 온 제의이다. 상인공동체는 그들의 생활양식에 따른 제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자갈치용왕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자력으로 일구어 온 ‘일터’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월적 대상에게 비는 행위를 공동체가 함께 일구어 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종교적 제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의 마음을 움직여 그 힘으로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신을 즐겁게 해야 한다.⁷⁰⁾ 자갈치 상인공동체는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용왕제를 선택했고, 푸짐한 상차림을 통해 제의의 효과를 높이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5. 맺음말

부산자갈치시장은 바다를 끼고 형성된 국내 최대의 어시장으로 부산

69) 임재해, 앞의 논문, 15쪽.

70) 임재해, 앞의 논문, 20쪽.

의 생활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갈치 시장의 역사와 형성, 자갈치 시장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 散積해 있거나 왜곡되어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 개별 연구, 즉 은어와 같은 언어 연구, 금기 및 속신, 제의 관련 민간신앙 연구 분야에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다채로운 도시민속의 보고인 자갈치시장 민속 문화 연구는 앞으로 무한한 연구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속학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욕구를 투영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잣대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속에서 녹아 있는 생명력과 그 영향력의 파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최해군,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 도서출판 지평, 1997.
박구병, 『한국 수산업단체史』, 수협중앙회, 1980.
이균옥,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 박이정, 1998.
하효길, 『한국의 풍어제』, 대원사, 2002.
조명환·양봉석, 『자갈치祝祭 十年史』,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보문디자인, 2002.
윤동환, 『동해안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010.
이균옥·김신호·윤동환·김소형·박연희, 『동삼풍어제』, 국립해양박물관, 2013.
김헌선, 『풍어제』, 국립무형유산원, 2014.

<연구논문>

- 남원목, 「부산시 선어시장의 생태 - 부산종합어시장을 중심으로」, 『동아논총』 제2집, 1964.
박구병, 「개항이후의 부산의 수산업」, 『항도부산』 제6호, 1967, 313쪽.
김우영, 「청과물 도매시장 중매인의 경제행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김청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시장의 기능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강정원 「노점상의 특성과 사회관계에 대한 일 연구-대구시 서문시장 노점상의 사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임재해, 「민속학의 새 영역과 방법으로서 도시민속학의 재인식」, 『민속연구』 6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6.

- 이상열, 「성남 모란장의 시공간적 변천과 의미 변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성미·손유정, 「영남지방의 무속과 불교 제의에 나타난 음식문화 연구」,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1,
- 박원철, 「시장 상인을 통해 본 지방 중소 도시 정기시장의 구조와 기능-영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 노광봉, 「부산시 어시장의 공간적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1호, 2003. 88쪽.
- 이은정, 「영천 시장체계와 내부 구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강정원, 「민속학과 현대사회, 도시」, 『한국 문화 연구』 7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 박환영, 「도시와 민속의 현장 - 경기지역의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6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한양명, 「원전과 변환: 도시축제로서 제주 입춘굿 놀이의 문제와 가능성」, 『한국민속학』 37집, 한국민속학회, 2003.
- 김시덕, 「현대 도시 공간 속의 장·상례문화」, 『한국민속학』 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 임재해, 「민속문화에 갈무리된 제의의 정체성과 문화 창조력」, 『실천민속학연구』 10집, 실천민속학회, 2007, 17-20쪽.
- 박경용, 「도시민속과 시장 공간- 대구 약령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9집, 실천민속학회, 2007, 166-167쪽.
- 최정윤, 「일제시대 부산어업조합의 설립과 활동」, 『수산연구』 28호, 2008, 41쪽.
- 박환영, 「도시민속 연구의 방법과 영역」, 『한국민속학』 54집, 한국민속학회, 2011.

김청열·조태훈 『어시장의 사적변천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부산공
동어시장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8집 제1호, 2013, 158쪽.

<기타 자료>

조선일보 2006. 02.12 강인범·권경훈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2014년03월31일.

디지털 충주문화대전

ichpedia 온라인무형문화지식사전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Abstract>

A study on Jagalchi Yongwangje (ritual for the mythic Sea Dragon King)

Kim, Nam-hyee

In Busan, 'Jagalchi sea food market' is located around Nam Hang. Jagalchi Yongwangje is observed every lunar January 15th. Jagalchi Yongwangje is different from other Yongwangjes. Jagalchi Yongwangje should be observed within lunar January 15th. Sea food sellers participating in Jagalchi Yongwangje are not fishermen.

Sea is important to the sellers as well as to fishermen, so they observe Jagalchi Yongwangje for good fortune.

The sellers' community has observed Jagalchi Yongwangje since 1970 and prepared Sacrifices and cost for Jagalchi Yongwangje.

There are more than 10 kinds of sacrifices in Jagalchi Yongwangje and four Ceremonial tables in four places; one in waterfront park, another in entrance of Jagalchi market, still other in seafood association, the other in power substation.

Key Words : Jagalchi Yongwangje, Nam Hang, Ceremonial tables

■ 논문접수 : 2015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2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

